

DI 국어	2026학년도 고 6월 학력평가 현대시 - 사랑의 전당, 보라, 감자꽃 (샘플)	OX 퀴즈 객관식	/ 10(개) / 19(개)
--------------	---	----------------------------	----------------------------------

[1-10] 다음 글을 읽고 다음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1-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順)아 너는 내 전(殿)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우리들의 전당(殿堂)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水晶) 눈을 내려 감아라.
 난 사자처럼 영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였다.

 청춘!
 ㉡성스런 촛대에 열(熱)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네게는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내게는 준험한 산맥이 있다.

 -윤동주, 「사랑의 전당」-

(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니 어미
 ㉠누가, 자식 놈 흥이라도 볼까봐
 끼니때 돌아오면
 대문 꼭꼭 걸어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씹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피어,
 ㉡꽃핀 나 볼라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박성우, 「보라, 감자꽃」-

-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가)는 대립적인 심상을 지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와 청자가 나아가게 될 이질적인 삶의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 (나)는 형태와 발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시어를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시적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가)에서 화자가 과거의 사랑을 병어리라고 지칭한 것은 외부의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애정을 키워 온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5. (가)의 화자는 다가올 외부의 시련을 피해 순에게 앞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영원한 사랑을 간직한 채 뒷문으로 떠나려 한다.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샘플)

-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달라지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를 밝히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샘플)

- ① ㉠: 말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사랑을 의미한다.
- ② ㉡: 사랑의 열정이 이미 사그라들었음을 드러낸다.
- ③ ㉢: 이별 이후에도 사랑을 간직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 자식이 흥잡힐까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낸다.
- ⑤ ㉤: 자신보다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8. (나)의 갑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샘플)

- 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으나 자식에게 소홀히 다루어진 대상이다.
- ② 어머니가 자식에게 품은 원망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 ③ 자식이 어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선물이다.
- ④ 어머니와 자식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매개물이다.
- ⑤ 자식이 고향을 떠나며 간직한 추억의 상징이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샘플)

<보기>

윤동주의 초기 작품에는 청춘의 사랑을 순결하고 신성한 것으로 형상화하려는 태도가 자주 나타난다. 그는 사랑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랑이 현실의 시련에 훼손되기 전에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간직하려 한다. 「사랑의 전당」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

- ① 사랑을 전당에 빚댄 것에서, 사랑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어둠과 바람이 부닥치기 전에 떠나려는 것은, 사랑이 훼손되기 전에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③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사라지려는 것은,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간직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한낱 병어리였다고 한 것은, 사랑을 고귀한 가치로 여겨 끝내 이루려는 의지로 볼 수 있겠군.
- ⑤ 성스런 촛대의 불이 꺼지기 전이라는 표현에서, 사랑을 순결한 모습으로 지키려는 태도를 살필 수 있겠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샘플)

<보기>

시에서 청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표현은 화자의 정서를 청자에게 전하거나 시적 상황에 주의를 모은다. 또한 같은 말을 거듭 제시하는 표현은 그 말에 담긴 정서를 강화하고 시에 일정한 가락을 더한다.

- ① (가)에서 순에게 눈을 감으라 하는 것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여 시적 상황에 주의를 모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자주 보라'라고 거듭 말하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정서를 강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를 거듭 제시하는 것은, 시에 일정한 가락을 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화자가 청자를 '순아'라고 부르는 것은, 청자를 불러 화자의 정서를 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질문을 거듭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 화자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을 쓰기 위함이겠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1. O

(가)는 순이를 청자로 부르고 있으며 (나)는 자식을 청자로 설정하여 당부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O

(가)는 아늑한 호수와 준험한 산맥이라는 대립적인 자연물을 대비하여 순이와 화자가 겪게 될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었으므로 적절하다.

3. O

(나)는 부사어로 쓰인 자주와 색채를 나타내는 명사 자주를 반복하여 어머니를 빈번하게 찾아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운율감을 형성하므로 적절하다.

4. X

(가)에서 화자가 자신들의 사랑을 병어리로 표현한 것은 사랑을 말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던 상태를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인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O

(가)에서 화자는 어둠과 바람이라는 시련이 닥치기 전 순이를 앞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영원한 사랑을 안고 뒷문으로 멀어지려 하므로 적절하다.

6. ①

(가)는 순에게, (나)는 자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서 변화는 두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색채의 대비로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지 않는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과를 밝히지 않는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을 부각하지 않는다.

7. ②

㉠은 성스런 촛대의 불이 꺼지기 전이라고 하여 사랑의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이미 사그라들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화자는 말로 드러내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의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라는 표현에 사랑을 간직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누가 자식 놈 흥이라도 볼까봐에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⑤ ㉤은 자기 자신 보다도 어머니를 더 자주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8. ①

(나)의 감자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챙겨 싸준 것이지만 자식이 쪼글쪼글 썩혀 화단에 버린 대상이다. 이는 어머니의 정성과 자식의 소홀함이 함께 담긴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감자는 어머니의 정성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원망을 상징하지 않는다.
- ③ 감자는 자식이 마련한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싸준 것이다.
- ④ (나)의 감자는 화해를 이끄는 매개물로 제시되지 않는다.
- ⑤ (나)에서 어머니가 싸준 감자를 자식은 썩혀서 화단에 버렸으므로 자식이 간직한 추억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

9. ④

사랑을 한낱 병어리였다고 한 것은 말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사랑을 뜻한다. 이를 사랑을 끝내 이루려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사랑을 전당에 빚던 데서 사랑을 신성하게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 ② 시련이 닥치기 전에 떠나려는 것은 사랑을 지키려는 태도이다.
- ③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사라지려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려는 태도이다.
- ⑤ 불이 꺼지기 전이라는 표현에 순결한 사랑을 지키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10. ⑤

(나)에서 질문을 거듭하며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화자가 순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모은다.
- ② '자주 보라'의 표현이 반복되며 화자의 어머니를 향한 정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의 반복은 시에 가락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순아'라는 부름은 청자에게 화자의 정서를 전한다.